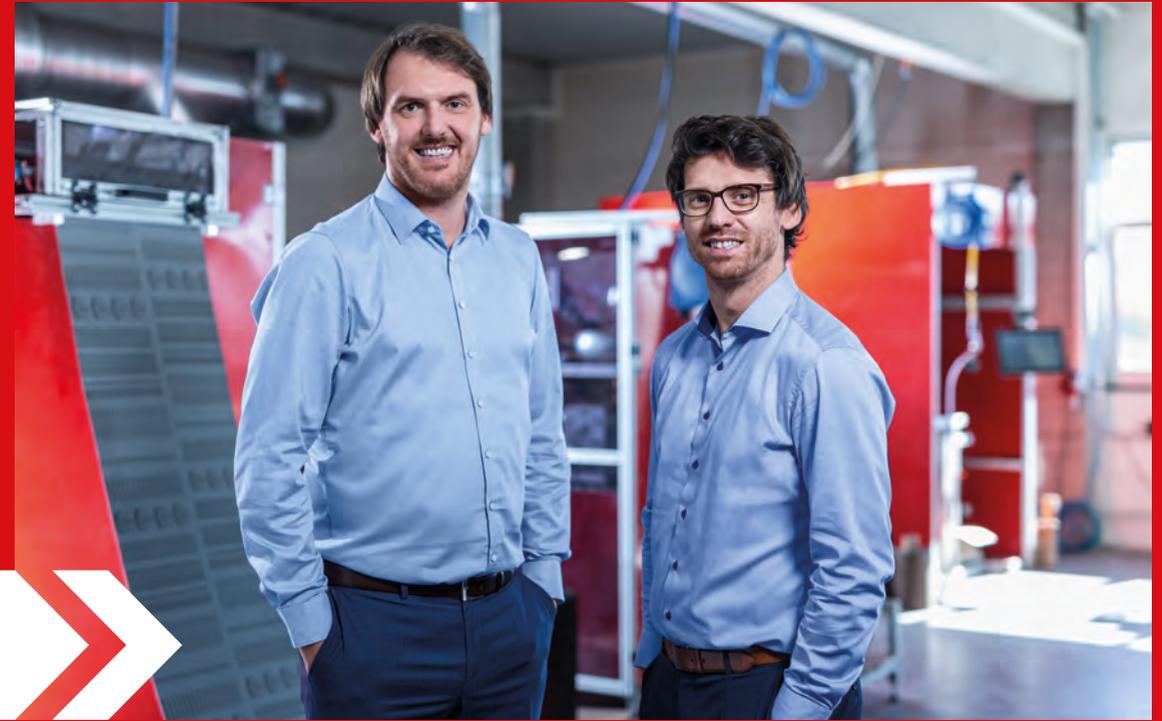




ENTHUSIASTS IN TECHNOLOGY

전 세계에서 유일성을 자랑하는 슬래그 제거 •
사전연삭 • 디버링 모서리 연삭 • 산화물 제거
• 마무리 연마용 공구

한국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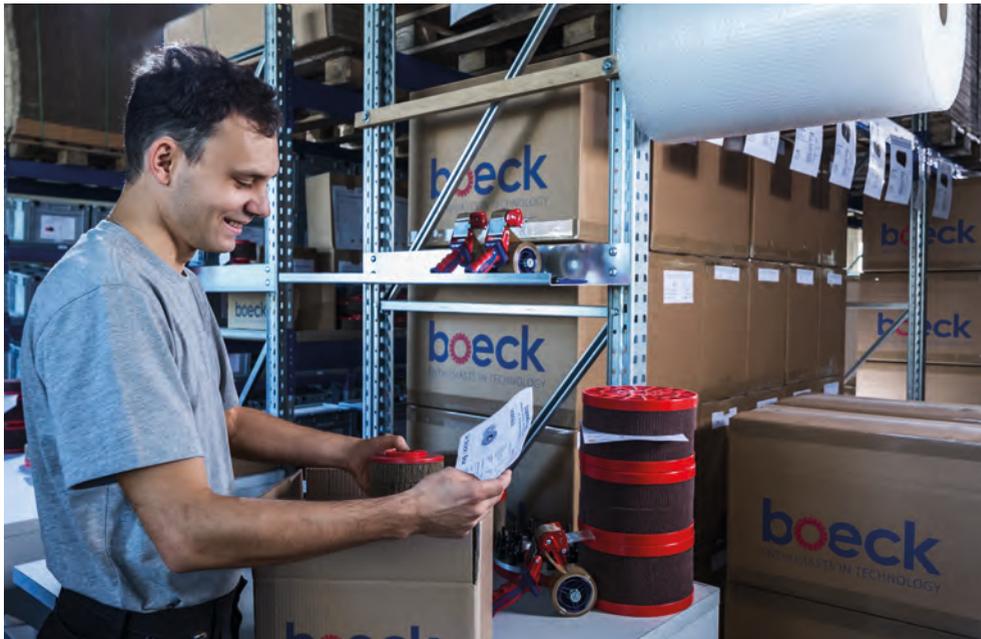


BOECK – 기술에 대한 열정

이 두 회사를 직접 경험한 사람이라면 아는 사실: 기술자 마크와 요헨 복은 진정 보통 “장인”이 아니다. 바이에른 슈베비슈 라이프하임 고장에서는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이 두 형제와 노력과 정신으로 뭉친 스페셜팀들은 공구개발에, 특히 철판재 디버링 공구생산에 몰입하고있다. 응용기술에대한 탁월히 정확한

이해가 모든 것에 대한 근간이다. 이상적으로 상호융합하는 고성능 프로세스의 기술로만이 가능한 영역내 한계에서 가장 신형이고 직접 개발로 지속 발전성을 가진 기술 완성도가 이루어진다. 중요한 부품이 없을 경우: 바로 이때 완벽함을 추구하는 뜨거운 열정이 나타난다! 이 모든 것이 합쳐 이토록 놀랍고

“Made by boeck”의 공구 솔루션이 탄생한다. 이것은 바로 전세계 고객뿐만아니라 회사의 팀원사이에서 보이는 진정한 감동을 통해서 증명된다!



우리의 마크를 만든다!



우리의 진정한 상표:

지속적이며 경쟁성있는 혁신적인 해결 방안.
자사의 고객은 우리의 뛰어난 기술 상담능력과 응용성능에의해 이익을 보장받는다. 이 노하우는 모든 생산분야에 있어서 고성능프로세스를 통해 최상의 경쟁력을 보증한다.



품질마크:

우리는 "Made in Germany" 품질을 완성한다.
고도의 자동화기술과 최고의 현대적인 자사의 완성개발기술로 고객을 위한 고도품질만을 생산한다. "Made in Germany" 은 이렇게 완성된다.



시대의 흔적

우리는 신속성을 표준화로 삼고있다.
공구 대부분은 주문하는 바로 그날 제품을 배달된다. 지체는 우리에게 이상적 모델이 아니다.



가치있는 자산

고객의 경제성은 자사성공의 기반.
지속적인 자동화와 지능적 구조 프로세스는 최고의 경제성을 나타낸다.



자사의 브랜드 상표

우리는 미래를 완성한다.
고객에있어 결정적인 부가가치는 우리의 사과와 행동의 중심이다. 따라서 우리는 기술의 한계에서 완성을 이루려 노력하고 그 결과 감동을 이루어낸다!



우리는 지금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는다.

우리는 열정으로 계속해서 전진한다. 고객은 안심하고 맡겨 주시면 된다. 이미 다음의 성과소개를 기쁘게 기다린다.

- 2017년 4월
생산지 두배로 확장
- 2016년 10월21일
첫 번째 특허 등록
- 2015년 3월
복수층 디버링 공구 생산개발
- 2014년 10월
새 개념의 디버링휠 & 빠른 릴리스 시스템 발전 프레젠테이션
- 2013년10월14일
첫 제품 판매- 디버링 디스크 QUICK 115
- 2013년7월
boeck GmbH회사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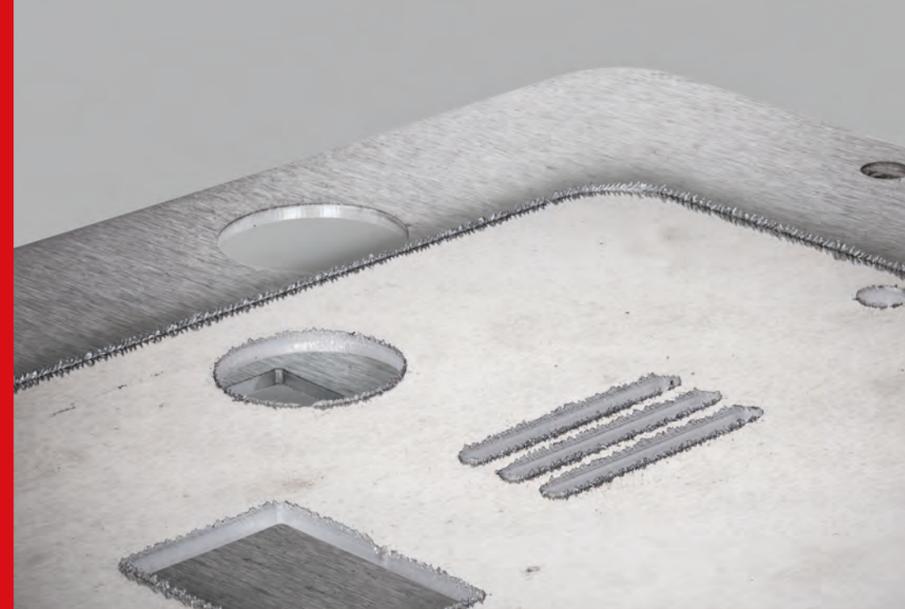


고도의 성능 프로세스 = 감동 x 기술 2

01 슬래그제거



플라스마 절단이나 강판절단에서 자주 강렬한 용해현상 또는 방사출면의 용융금속처짐 현상을 일으킨다. 소위 코팅물질이 안면과 외면 가장자리에서 나오기때문에 경제적인 가공작업을 위해서는 제거해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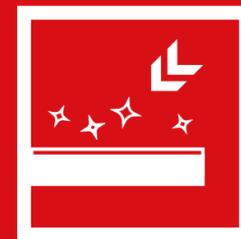
03 디버링 & 모서리 연삭

이 과정에서 일차절단 & 이차 절단면이 제거되고 모서리 마모작업이 된다. 다음 프로세스과정 (분체도장, 액체코팅, 양극산화처리 등등)을 하기위해서 뾰족한 모서리에 부상당함을 방지하기 위해 일차절단과 이차절단면의 제거시는 여러 차례의 모서리 연마작업이 병행된다. 모서리 연마작업은 작게는 십분의 일밀리미터에서 2 mm 또는 더 크게까지 가능하다. 이 반경은 예를 들어 DIN EN 1090 같은 규격에 필요사항이다.



05 종결-연삭과정

이 과정은 거친면을 깨끗히 연마하고 장식적 표면형성 돕는다. 거울같은 고광택 효과까지 특정 연마완성 단계를 칠재표면에 이룰 수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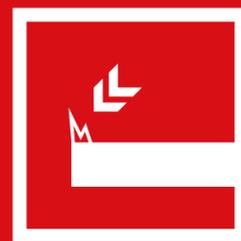
01

02

03

04

05



02 사전연마 & 디버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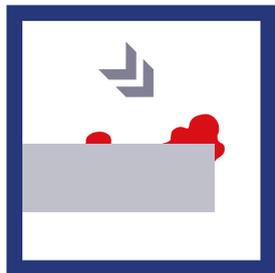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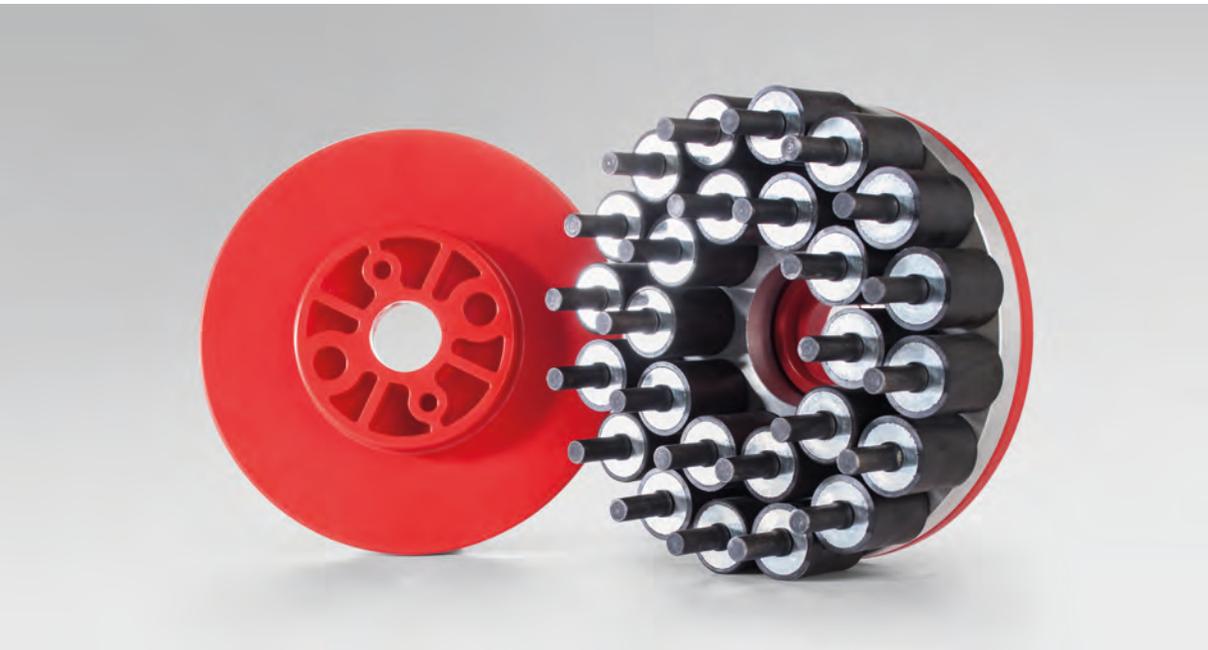
레이저, 플라스마 그리고 강철절단 또는 천공된 철판에서 모서리 생김은 종종 완전히 피할수는 없다. 거친 모서리 또는 일차절단면은 가공제품 절단면의 형성결과물로 원래 가공물 모서리와 표면에서 생성된다. 레이저절단으로 생긴 가공물 표면의 용접 스패터나 거친면, 표면 스케일링등은 완벽한 완성도 단계를 아직 이루지 못한 상태이다. 일차디버링의 부산물이 이차의 거친면이다. 이것은 가공물 표면에 발생하고 불충분한 제거 또는 잔여물질의 동시 변형에 의해 발생한다.



04 산화물제거

산소로 잘려진 단면의 절단 표면에 산화물질 층이 생긴다. 이 "어두운 표면층"은 다음 공정과정에서 접착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 예로써, 이 층은 분체도장을 떨어지게 할 수있어 이층을 제거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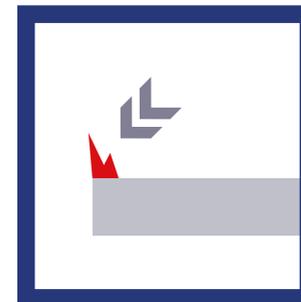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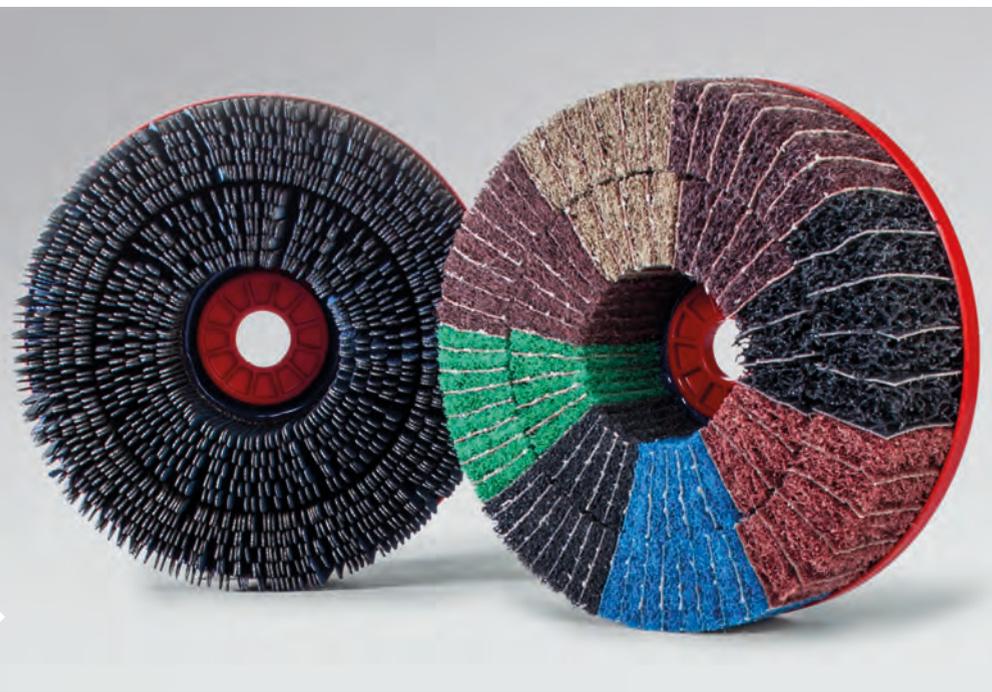
01 슬래그제거

일반 유통하는 슬래그제거법들은 해머로 제거하거나, 끌 또는 등근 연삭갈판으로 연삭하는 방법이다. 기계동작분야에서는 남은 재료물질은 접촉 롤러로 연삭하여 제거하게 된다. 또다른 산업영역에서는 많은 유연한 핀들이 수검층으로 달린 해머술을 이용한 타격법이있다.

02 사전연삭 & 디버링

연삭과정으로 일반적인 일차 거친 절단면, 용접스패터, 거친표면 그리고, 또는 스케일층이 제거된다. 일차 거친 절단면 제거작업 과정중에는 또한 이차적 거친 절단면 생성의 최소화가 중점에 놓인다. 작업품에 생긴, 원하지 않는 부차적 결과물을 깨끗하게 제거하기 위해서는 연삭밴드, 연삭디스크, 연삭시트용 특별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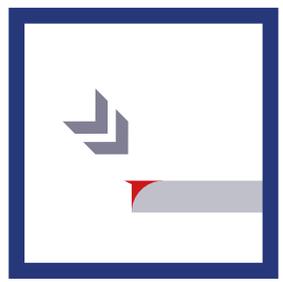




04 산화물제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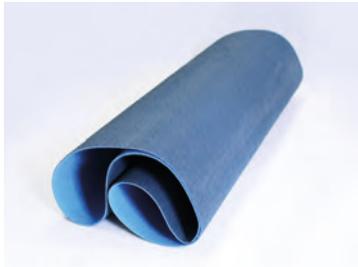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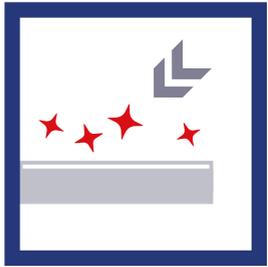
산화물의 기계적 제거는 연삭, 또는 브러쉬로 가능하다. 이 두가지 작업가능성은 순수 가공작업 프로세스에서 이용되어진다. 기계작업분야에서는 대개 브러쉬가 사용된다. 특별히 개발된 혁신적인 복수의 층인 와이어필의 덕택으로 이 방법은 가공품의 모서리를 유연히 따라 금속성의 빈 모서리면을 적중한다.

03 디버링 & 모서리 연삭



디버링과 모서리연삭은 반경, 천공, 절단면등에서 안면모서리와 내부모서리에서 고도의 적응력을 가진 유연한 연마공구로 성공적으로 작업이 가능하다. 알맞은 디버링디스크, 디버링휠, 디버링블록 그리고 디버링솔등이 손작동 기계나 연삭 또는 디버링기에 사용된다. 예를 들어 최근에는 연삭플랜트기계 시스템, 또는 진동 연삭기를 이용해 모서리를 동시에 같이 연마할 수 있다.





05 종결-연삭과정

마지막 작업단계에서는 주로 부직포, 연마사포공구, 펠트공구가 순환밴드, 또는 휠대신 사용된다. 수작업과정에서는 결과, 또는 재생산성이 상당히 작업자에 의존되어 의해 결정된다. 기계작업의 마무리에서는 기계에 알맞은 조정가능성 (예를 들어 멈춘 연삭밴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boeck회사는 우리에게 아주 좋은 파트너이다. 이 회사는 항상 고객 개개인에 맞는 해결책을 개별 제공해준다. 만일 불가능한 일이 생긴다면, 그런 곳에 이 회사가 제대로 일한다! <<

Torsten Klimmer, 회사 책임자 Ernst Klimmer GmbH, www.klimmer-gmbh.de



boeck
ENTHUSIASTS IN TECHNOLOGY

전화 +49 • 8221 • 20 03 961
팩스 +49 • 8221 • 20 03 963
이메일 info@boeck-technology.de

boeck GmbH • Ludwigstraße 8
89340 Leipheim • Germany
www.boeck-technology.de

발행정보:

발행자: boeck GmbH | 1. 차인쇄: 06/2018

책임대표 사장

Dr.-Ing. Jochen Böck | Dipl.-Ing. (FH) Dipl.-Kfm.
(FH) Marc Böck

등록청: Amtsgericht Memmingen | 등록번호: HRB
15558 | 회사 거래 공증 확인번호 § 27 a 거래세법 번
호: DE815440256

이 책자의 내용문과 그림에 정확성과 완전성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않음. 모든 공정성에 책임을 유보함. 이 책자의 내용, 레이아웃, 사진, 일러스트레이션, 도형은 전체에서나 부분적으로 독일 저작권법하의 보호를 받는다.

컨셉, 구성, 문장 & 기획:

Kreativagentur Thomas GmbH, www.ka-thomas.de

사진: Werbefotografie Weiss GmbH,
www.werbefotografie-weiss.de

인쇄: F56 Druckdienstleistungen, www.f56.de